

세계순례 Journey to the world

영상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은 여러 나라의 가곡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외국곡이지만 한국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 노래를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 곡들의 대부분은 70, 80 년대에 한국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곡들이며 당시 한국의 교육부의 지시를 받은 음악가들에 의해 선곡되었습니다. 교육부의 의도는 선진화된 서구 문화를 청소년들에게 소개하여 타문화의 아름다움을 이해시키고 문화적 교감을 통해 국제인 cosmopolitan 의 태도와 소양을 갖추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소개하는 곡은 Aloha Oe(알로하 오예), Heidenroeslein(들장미), La Paloma(라 팔로마), Swing Low, Sweet Chariot(달려라 마차들아), Greensleeves(푸른 옷소매), Der Tannenbaum(소나무), Funiculi-Funicula(푸니쿨리 푸니쿨라), Oh! Susanna(오! 수재너)입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위에 열거한 곡들 중 한 곡 정도는 암기하여 능숙하게 부를 것을 권하셨는데, 이는 차후 내가 서구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나라의 노래 한 곡 정도를 부를 수 있다면 그들을 사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버지의 권유를 실행에 옮긴 적은 없습니다만 이러한 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후회를 한 적은 많습니다. 지금도 제가 미국 곡이던 독일 곡이던 원어로 한 곡 정도 잘 부를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지 않지만 음악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남들에게 전달 되길 바랍니다.